

## 6·25전쟁기 인천지구 학도의용군의 조직과 활동

손 경 호\*

1. 머리말
2. 인천지구 학도의용군의 조직
3. 인천지구 학도의용군의 초기 활동
4. 인천수복 후 조직 및 활동과 남으로의 장정
5. 맺음말

### 1. 머리말

6·25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아 학도의용군을 연구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다. 우선 학도의용군은 그 자체로 자료와 관심의 부족으로 제대로 연구되어 있지 않은 주제이며, 당시 전쟁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참여자의 자발성과 신분으로 인해 한국 사회에 던져주는 의미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전쟁에 존재하는 큰 흐름에 비추어 볼 때 학도의용군은 그다지 흔하지 않은 현상이며 6·25전쟁에 왕성하게 나타났던

\* 국방대학교 부교수, 본 연구는 이 주제에 대한 국방부나 소속기관의 견해와 무관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힙니다. 본 논문은 2012년 10월 9일 인천사연구소에서 주관한 「한국전쟁시 인천에서의 자위적 구국활동을 추념하며」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가진 독특한 공동체적 가치관의 소산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러한 독특한 요소들이 일상적 현상들이 말해 주지 않는 전쟁의 진실을 강하게 웅변하는 법이다. 때문에 정전 60주년을 맞은 한국 사회는 학도의용군이라는 창을 통해 6·25전쟁의 진면목을 들여다 볼 수 있다.

특별히 인천지역의 학도의용군을 연구 주제로 삼은 것은 연구 주제로서 학도의용군이 지니고 있는 특수성에 기인하고 있다. 일반적인 군사사 연구의 주제는 대부분 단일한 영역의 연구에 귀결될 수 있으나, 학도의용군은 군과 지역사회에 동시에 연관되어 있어 다중영역의 연구가 필요한 주제이다. 학도의용군은 군사적인 활동 위에 지역의 이야기가 가미되어야 하고 학교의 이야기가 덧붙여져야 전반적인 이해가 가능한 주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도의용군은 필연적으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연구가 바람직하며, 그 가운데 인천은 후술할 몇 가지 상징적인 의미로 하여 반드시 학도의용군 연구에 등장하여야 하는 지역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 따라 6·25전쟁 당시 인천부근에서 활동하였던 학도의용군에 관한 연구는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하다. 먼저 6·25전쟁 학도의용군 연구의 한 줄기로서 인천부근 학도의용군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다. 이는 군사사적 측면에서 6·25전쟁 학도의용군이 6·25전쟁의 역사 속에서 가지고 있는 맥락에서 인천지방 학도의용군의 위치를 확인하고 기존의 학도의용군 연구에서 형성된 담론을 통해 인천지방 학도의용군의 조직, 활동, 그리고 의의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또 다른 한 가지 관점은 6·25전쟁 당시 활동한 인천지방 학도의용군을 인천 지역사의 맥락에서 이해하고 바라보는 것이다. 인천은 서울의 관문으로 구한말부터 일제의 강점, 해방과 6·25전쟁, 그리고 근대화에 이르는 역사의 격렬한 소용돌이의 한가운데 위치해 있던 곳이다. 이로 인해 인천에는 러일전쟁 당시의 탄피가 날아들었고 처음으로 철도가 설치되었으며, 해방 당시 미 제24군단이 상륙하였고, 6·25전쟁 시에는 연합군이 상륙하였다. 이러한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인천의 지역사를 형성하고 있어 지역 고유의 정서와 문화가 가미된 지역주민들의 역사로 6·25전쟁

당시 학도의용군을 조망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본 연구는 전자의 입장을 취하되 후자의 관점을 다소 가미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6·25전쟁의 공적인 역사 속에서 인천지구 학도의용군이 지니고 있는 의의를 조명해 보고자 하며 지역사의 측면에서 학도의용군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조금이나마 밝혀 보고자 한다. 전자의 관점에서는 보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인천지구 학도의용군의 이야기를 다루며 후자의 관점에서는 학도의용군의 삶을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관찰하여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분석을 지향하고자 한다.

서두에 언급하였듯이 6·25전쟁 학도의용군은 학계의 관심을 끌어난 주제가 아니었다. 그동안 6·25전쟁은 전쟁 원인과 책임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어왔다. 1990년대 후반 냉전의 종식에 이은 공산권국가들의 자료 공개로 인하여 6·25전쟁 연구에 비로소 사료의 교차 검증이 가능한 여건이 형성되고 어느 정도 전쟁의 발발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자 연구의 관심이 드디어 개인이나 공동체가 경험하였던 전쟁의 기억 차원으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의 추세는 주로 전쟁의 피해에 초점이 놓여 있고 전체적으로는 민간인 학살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과적으로 학도의용군과 같이 전쟁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주체들은 연구에서 소외된, 전쟁 연구의 왜곡이 존재하고 있다.<sup>1)</sup>

6·25전쟁 당시 학도의용군에 대한 연구는 남상선에 의해 1974년에 출간된 『6·25와 학도병』이 그 효시를 이룬다. 이후 간헐적으로 1991년에 『학도의용군 이활남』이 그리고 『웅진 학도 유격부대 전사』가 1992년에 출간되었다. 학도의용군에 대한 최초의 공간사는 육군본부에서 1994년에 발간한 『6·25전쟁 시 학도의용군』이다. 이 공간사에 이르러서 비로소 학도의용군에 대한 분류와 정리가 정연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를 더욱 발전시킨 것이 2002년에 출간된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Ⅱ)』에 실린 손규석의 「학도의용군 활동유형 분석」이다. 한편 최근에는 나중남이

1) 6·25전쟁 연구 동향에 관하여는 손경호, 「최근 한국전쟁 연구동향-2005년 이후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 근현대사 연구』, Vol.56(2011) 참조.

기존의 연구를 참고하고 참전 학도의용군의 증언을 직접 채록하여 분석한 학도의용군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완성하였다. 그는 이 연구를 수행하는 도중에 요약본을 ‘2011년도 6·25전쟁사 학술회의’에서 발표하였는데, 그는 자신의 연구에서 학도의용군의 개념 정립을 시도 하였다.<sup>2)</sup> 한편 지난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이러한 성과를 『6·25전쟁 학도의용군 연구』와 자료집으로 출간하였다.<sup>3)</sup>

본 연구의 대상인 6·25전쟁 당시 인천지구 학도의용군에 대한 공식적인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인천학생 6·25 참전자 편찬위원회(이하 인천학생 편찬위로 기술)’에서 출간한 자료집 성격의 참전사가 2007년, 2008년, 그리고 2010년에 걸쳐 전 3권으로 발간되었다. 이외에 인천 학도의용군에 대한 정부기관의 연구나 학술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아울러 지난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발간한 『6·25전쟁 학도의용군 자료집』에 간략한 활동 사항과 일부 인원의 수기, 그리고 참여자 명단이 게재되어 있다.<sup>4)</sup> 한편 인천학생 편찬위는 자체적으로 기념관을 운영하며 참전자들의 뜻을 기리고 호국의 숭고한 의의를 후대에 교육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sup>5)</sup>

6·25전쟁 당시 인천지구에서는 수천 명의 학도의용군들이 활약하였다. 이들은 전쟁 초기부터 자체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여 국가 공권력이 인천을 포기한 시점에서조차 인천의 치안을 유지하였으며, 인천이 실패된 후에는 피난하거나 지하로 잠적하였다가 인천상륙작전 이후 다시 활동을 재개하여 연대 규모까지 조직을 확장하면서 국방부 정훈국의 통제 아래 각종 임무를 수행하였다. 특히 이들은 중공군의 3차 공세로 전세가 불리해지자 대거 후방지역으로 이동하여 해병대와 육군에 입대하여 전후방 각지

2) 나중남, 「6·25전쟁 시 학도의용군 연구」, 『2011년도 6·25전쟁사 학술회의발표집』(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1.10.4) 참조.

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 학도의용군 연구』, 201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 학도의용군 자료집』, 2012.

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 학도의용군 자료집』, 2012, 249~276쪽, 328~338쪽.

5)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동 15-5에 위치하고 있음.

에서 활약하였다.

본 논문의 의의는 이렇듯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러나 놀라운 활약을 하였던 인천지구 학도의용군의 이야기를 재구성하여 소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6·25전쟁의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또한 6·25전쟁 학도의용군사의 전반적인 관점 가운데 인천지구 학도의용군의 활동을 조망하고 분석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는 인천지구 학도의용군의 특별한 이야기를 지역사의 관점에서 조명하고 해석하는 노력을 가미할 것이다.

## 2. 인천지구 학도의용군의 조직

학도의용군이 6·25전쟁에 참여하였다는 것은 다소 복잡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1959년에 최초로 학도의용군을 규정한 병역법 및 그 시행령에 의하면 학도의용군은 재일동포 학도의용군을 포함하여 1950년 6월 29일 이후부터 육해공군 또는 유엔군에 예속되어 1951년 2월 28일 해산할 때까지 근무한 자를 의미하며, 전상으로 인하여 중간에 나온 자를 포함하여 전투에 참가하고 그 증거가 있는 자를 의미한다.<sup>6)</sup> 이 규정은 전쟁 이후 학도의용군으로 참전하였던 분들의 병역을 보상해 주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므로 명확한 기한을 설정하고 병역에 필적할 전투임무수행을 그 중요한 요건으로 하였다. 6월 29일이 명시된 이유는 수원에서 최초로 비상학도대가 결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1951년 2월말이 언급된 이유는 정부가 학도의용군으로 참전한 학생들에게 학교 복귀령을 하달하였기 때문이다.<sup>7)</sup>

한편 국가보훈법령의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에서는 재일 학도의용군을

6) 병무청, 『병무행정사(상)』, 서울, 1985, 278쪽.

7) 손석규, 「학도의용군의 활동유형 분석」,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88쪽.

규정하며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에 자원입대하여 전쟁에 참여하고 제대된 자로 정의하였다.<sup>8)</sup> 이는 사실 재일 학도의용군으로 참전한 분들의 희생을 보상하려는 차원에서 규정된 법률로 참전기간에서 이분들에게 맞는 기준을 도입하였고 직접적인 전투임무수행을 구체적인 요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좀 더 포괄적으로 학도의용군을 정의한 것은 육군본부가 발간한 공간사에서 사용된 개념이다. 1994년 발간된 『한국전쟁 시 학도의용군』에서는 학도의용군을 “6·25전쟁 발발 시부터 1951년 4월까지 대한민국 학생의 신분으로 지원하여 전·후방에서 전투에 참여하여 공비소탕, 치안유지, 간호활동, 선무공작 등에 참가함으로써 군과 경찰의 업무를 도와주었던 개별적인 학생 혹은 단체를 뜻한다.”고 하였다.<sup>9)</sup> 이 정의에서는 학도의용군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직접적인 전투 이외의 임무에 대해서도 인정해주고 있다. 아울러 1951년 4월로 활동기한을 명시한 것은 정부의 학도의용군 복귀 지시에 따라 실질적으로 1951년 4월 3일을 기해 학도의용군을 주축으로 운용되던 육군본부 정훈공작대가 해산되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나중남은 학도의용군의 조건으로 군번 부여 여부가 중요한 조건이 됨을 제기하였다. 그는 학도의용군이 일단 군의 모병에 의하여 입대하고 정식으로 군번을 부여받으면 학도의용군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주장하였다. 군번 부여와 동시에 신분이 학도의용군에서 정규군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서 1951년 이승만 대통령의 학생 복귀 지시 담화가 발표되었을 때 군번을 부여받지 않았던 학도의용군들은 학교로 돌아갈 수 있었으나 이미 정규군에 포함된 인원들은 군에 계속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음을 지적하였다.<sup>10)</sup> 이는 실질적으로 학도의용군으로 참전하셨던 분들 사이에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이다.

8) 국가 보훈법령의 ‘국가 유공자에 관한 법률’(1984.8.2, 법률 제3742호 1장 4조 8항).

9) 육군본부, 『한국전쟁 시 학도의용군』, 1994, 17~18쪽.

10) 나중남, 「6·25전쟁 시 학도의용군 연구」, 47쪽.

위에서 논급한 사항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볼 때 학도의용군은 학생의 신분으로 자발적으로 참전하였으며, 군번을 부여받지 않고 활동하여야 하며, 정부의 학교 복귀 지시에 의하여 복귀한 자로 정의됨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참전 활동에는 전투 임무를 비롯한 선무공작 등 군과 경찰의 임무를 보조하는 역할들이 포함된다. 이는 가장 엄밀한 차원의 학도의용군에 관한 정의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일단은 본 연구에서는 이 관점을 채용하기로 한다.

위에서 확정한 가장 엄밀한 의미의 학도의용군의 정의를 적용하면 6·25전쟁 당시 인천지구 학도의용군의 연구대상기간은 개전에 의해 조직이 결성된 시점부터 북한군 점령 당시의 휴지기를 거쳐 인천상륙작전에 의한 수복이후 1950년도 말까지 인천에서의 활동, 그리고 대규모 남하 및 각 군으로의 입대까지가 된다. 이 시기까지의 인천 학도의용군 활동이 조직적 차원에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실제 이미 발간된 대부분의 인천 학도의용군의 참전기에서 회고자들은 입대 시점까지는 학도의용군에 대한 강한 소속감을 드러내고 있으나 입대 이후에는 자신이 속한 부대에 대한 회고, 특별한 인간관계를 추억하고 있다.

인천지역에서는 6·25전쟁 발발 다음날인 1950년 6월 26일에 전인천 학생의용대가 조직되었다.<sup>11)</sup> 당시 고려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이계송이 의용대장에 선출되었으며 인천상업중학교에 재학 중인 인원들을 주축으로 다음 표와 같은 조직이 구성되었다.

다음의 인원들이 평소 보병 제1사단 12연대 정보과와 협조관계를 가지고 있던 이기관이 6월 25일에 전쟁발발 소식을 듣고 다른 인원들을 규합하여 이계송을 방문하여 대책을 논의한 결과 전쟁에 대비하여 단결할 것을 결의한 것이다.<sup>12)</sup>

11) 이계송의 증언, 인천학생 6·25참전사 편찬위원회, 『인천학생 6·25 참전사 I』, 인천: 인천학생 6·25참전사 편찬위원회, 2007, 374쪽.

12) 같은 책, 376쪽; 이기관 증언, 인천학생 6·25참전사 편찬위원회, 『인천학생 6·25 참전사 II』, 인천: 인천학생 6·25참전사 편찬위원회, 2008, 292쪽.

〈표 1〉 전인천 학생의용대 조직

부 서	책임자	비 고	부 서	책임자	비 고
의용대장	이계송	고려대학교 2학년	총무부장	이기관	인천상업중 6학년
조직부장	정연옥	인천중학교 5학년	선전부장	김영택	인천상업중 6학년
감찰부장	염상건	인천상업중 6학년	선전부차장	박경하	인천상업중 6학년
감찰부차장	박종근	인천공업중 5학년	재정부장	?	
정보부장	?				
본부임원	김학일	인천상업중 5학년	본부임원	하철호	인천공업중 5학년

출처 : 인천학생 6·25참전사 편찬위원회, 『인천학생 6·25 참전사 I』(인천, 2007), 377쪽.

인천 학생의용대는 결성과 더불어 향후 활동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 나갔다. 우선 이들은 현재의 중구 답동 신흥초등학교 옆 언덕에 위치해 있던 일본식 사찰인 정토사에 본부를 정하고 전인천 학생의용대의 현수막을 내걸고 발대식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이들은 학생의용대의 존재를 알리고 활동 대원을 식별하기 위한 완장을 만들면서 의용대가(哥)를 작성하였다.<sup>13)</sup>

전인천 학생의용대가 쉽게 결성될 수 있었던 것은 참여하였던 이들이 전전(戰前)부터 인천지구 학생연맹에 함께 가입하여 활동하여 왔으며 학도호국단을 통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계송은 인천상업중학교의 학도호국단 연대장을 역임하였고 동시에 학생연맹 경기도 연맹위원장을 역임하였다. 그밖에 정국노, 박희순, 정연옥, 성효경, 이기관 등 40여 명이 인천학련 출신이었다.<sup>14)</sup> 염상건의 경우도 인천상업중학교 학도호국단의 감찰부장을 맡고 있었으며 김영택, 이기관, 정연옥 등과 함께 학생운동을 하고 있었다.<sup>15)</sup>

13) 같은 책, 377쪽.

14) 이계송의 증언, 같은 책, 374쪽.

15) 염상건의 증언, 같은 책, 253쪽.

6·25전쟁 이전 한국정부는 학도호국단을 편성하여 학원의 좌익화를 근원적으로 봉쇄하고 단체훈련을 통하여 학생들의 신체와 정신을 단련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1948년 12월 21일부터 이듬해 1월 28일까지 중등학생 간부 300명을 선발하여 서울에 위치한 중앙학도훈련소에 입소시켜 훈련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1949년 1월 23일에는 학도호국단 조직 및 지도요강을 공포하여 당해 2월까지의 중등학교에 학도호국단 편성을 완료하였고 4월까지의 각 대학에 학도 호국단 설치를 완료하였다.<sup>16)</sup> 또한 각급 학교의 군사훈련 교관을 양성하기 위하여 학교의 체육 교사들을 육군사관학교 등에 입소시켜 교육 후 예비역 육군소위로 임관시켜 교련교사로 배속시켰다.<sup>17)</sup>

정부는 학도호국단의 독점적인 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학도호국단만을 통하여 학생활동을 하도록 하였고<sup>18)</sup>, 1949년 8월 6일 공포된 병역법에서는 전국의 중등학생 이상 대학생은 전원 의무적으로 학도호국단에 편성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1949년 말에는 중앙학도호국단은<sup>19)</sup> 산하에 전국의 중학교 이상 947개교 단원 45만 명의 거대조직으로 성장하였다.<sup>20)</sup> 중앙학도호국단의 단장은 문교부장관이 부단장은 문교부차관이 맡았으며, 대통령이 학도호국단의 총재로 추대되었다. 경기도의 경우 학도호국단의 단장은 경기도지사가, 부단장은 문교사회국장이 임명되었으며, 학도별 학도호국단 단장에는 당해 학교 교장이, 부단장에는 교감이 임명되었다.<sup>21)</sup>

학도호국단은 설립목적에 따라 학원을 보호하고 향토방위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 및 지역을 기준으로 설립된 조직이며, 행정조직과

16) 육군본부, 『한국전쟁 시 학도의용군』, 33쪽.

17) 3기에 걸쳐 실시, 여자 32명 포함 379명, 42일 간 훈련시켰음, 병무청, 『병무행정사(상)』, 서울: 병무청, 1986, 256·493쪽.

18) 1949.9.27, 대통령령 제186호.

19) 1949.4.22 편성.

20) 육군본부, 『한국전쟁 시 학도의용군』, 34쪽.

21)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교육사』, 1995, 352쪽.

연계된 고도로 군사화된 조직이었다. 학도호국단의 하부조직은 이러한 의도와 단체훈련의 필요에 의해 군대식 편성을 따라 대대, 중대, 소대로 학생들이 편성되었다. 그리고 학도호국단 내에는 총무부를 비롯하여 8개 부를 설치하여 학교의 규율, 체육, 훈련, 학예에 관한 사항까지 관장하게 하였으며 경기도에 사무국을 두어 도 학도호국단 전체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sup>22)</sup>

이러한 학도호국단은 초기 학도의용군 형성의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북한의 남침 소식이 알려지자 학생들은 학도호국단의 간부들을 중심으로 대책을 논의하였고 국방부 정훈국을 찾아 참전 의사를 표명하기도 하였다.<sup>23)</sup> 최초의 학도의용군 조직으로 알려진 1950년 6월 29일 결성된 비상학도대는 서울과 경기지방에서 모여든 학도호국단 간부들이었다.<sup>24)</sup> 비상학도대는 6월 28일 서울이 실패된 이후 서울을 탈출하여 수원에 모인 학생들이 국방부 정훈국의 후원을 받아 결성된 조직이다.<sup>25)</sup>

인천지구에서 결성된 전인천 학생의용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인천에서 조직된 학도의용군이 수원에서 결성된 비상학도대보다 먼저 결성되었다는 것이다. 개전 당일 인천지구 학생들은 신속히 전쟁발발 소식을 입수하였고 대책을 강구하여 다음날 학도의용군의 조직을 완료하였으며, 특히 비상학도대와 달리 국방부의 후원 없이 자력으로 의용군을 조직하였다. 두 번째로 인천의 학도의용군 역시 다른 지역의 학도의용군과 동일하게 학도호국단을 비롯한 전전(戰前) 우익 학생단체의 조직을 근간으로 출발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인천지구 학도의용군 형성이 당시 보편적인 한국 학생운동의 범주에 속해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22) 같은 책.

23) 같은 책, 66쪽.

24) 같은 책, 67쪽.

25) 같은 책, 66~67쪽.

### 3. 인천지구 학도의용군의 초기 활동

결성 초기 전인천 학생의용대는 인천에서 자체적으로 결성된 인천시 비상시국대책위원회와 연계를 맺으며 활동하였다. 이는 상당수 학생들이 비상시국대책위원회에 소속된 인원들과 개인적인 연고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일부 비상시국대책위원회의 인사들은 학생의용대 임원들의 부친이었던 것이다.<sup>26)</sup> 이러한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전인천 학생의용대는 지역 상위 기구의 일정한 통제 아래에서 체계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우선적으로 전인천 학생의용대는 시민의 단결과 질서 유지에 역량을 집중하였다. 이기관의 회고에 의하면 당시 인천에는 시장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전쟁 전에는 시장인 표양문이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시장직을 사임하고 부시장인 조승환이 대행하고 있었다.<sup>27)</sup> 이후에 인천 유지들이 조승환을 인천시장으로 임명해 달라고 내무부에 건의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시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전쟁이 터진 것이다. 이에 인천의 유지들은 비상시국대책위원회<sup>28)</sup>를 구성하였고 이들은 우선 미곡 배급을 그대로 지속하고 시의 행정과 치안을 관장하였다.<sup>29)</sup> 시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던 학생의용대는 자연스럽게 비상시국대책위원회의 지휘에 따라 시민의 단결을 도모하고 질서를 유지하였다.

초기 전인천 학생의용대의 활동은 이기관의 증언에 비교적 소상하게 드러난다. 그의 증언을 토대로 당시 학도의용군의 활동을 재구성해 보면 초기 활동의 몇 가지 방향을 알 수 있다. 우선 전인천 학도의용대는 조직 유지와 확장을 위한 자구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자구 노력의

26) 이열현은 이계송의 부친, 정해궁은 정국노의 부친, 같은 책, 295~296쪽.

27) 이기관의 증언, 인천학생 6·25 참전사 편찬위원회, 『인천학생 6·25 참전사 II』, 295쪽.

28) 하상훈(국회의원 출마)·이열현(한민당 간부)·정해궁·오창섭(인천 지검장)·전두영(만석동 못 공장 사장)·김득하, 같은 책, 295~296쪽.

29) 이기관의 증언, 같은 책, 296쪽;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인천의 역사와 문화』(인천: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3), 222쪽.

핵심은 운용 자금을 확보하는 것과 학생의용대가를 작성하여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었다. 의용군 결성 이후 이계송과 정연옥은 인천경찰서 박영희 서장을 만나 원조를 요청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경찰서장의 주선으로 만석동에 자리하고 있던 동양방직으로부터 몇 통의 광목을 얻었다. 학생들은 광목을 시가에 팔아 운용자금을 마련하기도 하고 완장과 현수막을 만들기도 하였다.<sup>30)</sup> 학생들은 또한 ‘전인천 학생의용대가’를 만들었다. 이들은 외국 행진곡에 가사를 붙였는데 이기관, 김영택, 염상진이 작사를 하였다. 가사는 다음과 같다.

1. 정열과 용맹은 학도의 보배 이 나라의 흥망은 우리의 생명  
이 몸을 다 바치어 나라가 흥한다면 우리 학도의용대 죽음으로써  
아 아 - - 웃으며 꽃이 되리라
2. 임전무퇴 교우이신 화랑도 정신 거룩하신 십용사 뒤를 받들어  
백두산 하늘 높이 태극기 휘 날릴 때 우리 학도의용대 보람 있으리  
아 아 - - 웃으며 꽃이 되리라<sup>31)</sup>

전인천 학생의용대는 조직의 유지 및 확장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였다. 그 가운데 주요한 일 중의 한 가지는 6월 30일에 시행한 켈기대회였다. 이때는 이미 서울이 북한군에게 함락된 시점이었는데 학생들이 인천제일공회당<sup>32)</sup>에서 켈기대회를 연 것이다. 약 200명의 학생들이 학생들의 참여를 호소하고 구국의 결의를 다짐하고자 집회를 열었으며 이후 전인천 학생의용대는 본부를 정토사에서 공회당으로 옮겼다. 이날의 켈기대회는 전인천 학생의용대의 존재를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많은 학생들이 학생의용대에 가담하게 하는 촉진제로서의 역할을 하였다.<sup>33)</sup>

전인천 학생의용대가 주로 활약하였던 분야는 치안유지였다. 치안유지를

30) 이기관의 증언, 인천학생 625 참전사 편찬위원회, 『인천학생 625 참전사 II』, 293쪽.

31) 이기관의 증언, 같은 책, 294쪽.

32) 현재 흥여문 밑 인성여고 체육관 자리.

33) 이기관의 증언, 같은 책, 300쪽.

위해 전인천 학생의용대는 두 가지 활동을 하였는데 한 가지는 자구적인 노력으로 시내의 일반적인 치안을 유지한 것이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인천을 포기하고 도주한 경찰들을 다시 불러온 일이었다.

자구적인 인천의 질서 유지는 관공서와 협조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 활동은 전인천 학생의용대가 구성된 이후 7월 4일 인천이 북한군에게 점령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학도의용군들은 교통정리를 하였고<sup>34)</sup>, 학생을 선도하고 토착 공산주의자를 색출하기도 하였으며<sup>35)</sup>, 공회당으로 본부를 이전한 뒤로는 24시간 근무 체제를 유지하며 시내 곳곳에 학생들을 배치하여 시청, 법원, 세무서 등 주요 건물을 관리하고 유지하였다.<sup>36)</sup> 또한 학생들은 시청과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시청에 파견 근무를 나가는 형태로 전시 시정을 보조하기도 하였다.<sup>37)</sup>

전인천 학생의용대의 중요한 성과 중의 하나는 수원으로 철수한 인천 경찰을 다시 불러와 인천의 방위에 적극 기여한 것이었다. 6월 29일 경기도 경찰국은 북한군이 진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수원으로 철수하였다. 경기 경찰은 전황의 불리함을 인지하고 인천을 치안공백 상태로 방치한 채 조용히 철수한 것이다. 인천에는 경기도 경찰국 보안과장의 인솔 하에 개성 인근 전투에 참가하고 돌아온 인원과 보안과의 몇몇만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 학생의용대 간부들은 이 문제를 숙의하고 일단 도 경찰국을 찾아가보자고 결정하고 29일 저녁에 이기관, 정연옥, 김영택 등 5~6명이 수인선을 따라 도보로 수원으로 향하여 다음날 수원 경찰서에 도착하였다.

학생들은 수원 경찰서에 도착하여 인천의 상황을 보고하고 마침 그곳에 위치해 있던 육군본부 실무자로부터 인천 치안 유지를 위한 병력 파견을 약속받았다. 학생들의 노력에 의해 편성된 ‘경찰 인천 지원대’는

34) 이기관의 증언, 같은 책, 296쪽.

35) 인천학생 6·25 참전사 편찬위원회, 『인천학생 6·25 참전사 I』, 317쪽.

36) 이기관의 증언, 『인천학생 6·25 참전사 II』, 300~301쪽.

37) 이기관의 증언, 같은 책.

황해도 옹진 방면에서 후퇴한 경찰들과 인천에서 철수한 경찰들 위주로 100여 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트럭을 이용하여 6월 30일 오후 3시 30분경 인천에 도착하였다.<sup>38)</sup>

경찰지원병력은 지방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저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지방 공산주의자들이 당시 이미 인천시청을 점령하고 북한군의 진주를 준비하고 있었으며 지역 우익인사들의 명단과 자신들에게 동조적이었던 인물들의 명단을 작성해 놓고 있었다. 경찰은 즉각 인천시청으로 진격하여 시청을 점령하고 주동자들과 동조자들을 체포하였으며 명단을 압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sup>39)</sup> 만일 경찰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지방 공산주의자들은 조기에 인천을 장악하고 북한군 진주 이전에 공산 치하로 만들어 놓았을 것이다.

전인천 학생의용대가 전개한 이러한 활동들은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인천지구의 학생의용대는 북한군이 갑자기 들이닥쳐 활동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였던 서울의 학생들과 달리 전쟁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활동하였으며 국가 공권력이 철수한 다음에도 좌절하지 않고 인천을 방위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하여 경찰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였으며 이를 통해 인천이 조기에 공산치하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개시하여 비교적 오랜기간 동안 조직적으로 지역의 질서와 치안을 유지하였다.

전인천 학생의용대의 학생들은 북한군의 접근을 눈치 챈 경찰이 다시금 7월 3일 철수하고 다음날인 7월 4일 북한군 6사단의 근접이 임박해 오자 피란길에 오르거나 지하로 잠적하여 활동을 중단하였다. 이로써 전 인천 학생의용대의 활동은 막을 내렸다. 학생의용대는 초전 9일 간 침착하고 안정되게 지역의 질서와 치안을 유지하는 보기 드문 업적을 남겼다. 학생의용대가 펼친 9일 간의 활발한 활동은 향후 인천에 국제연합군이 상륙하면서 인천지구에서 학도의용군이 재건되고 급격히 세력을 확충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38) 이기관 증언, 같은 책, 299~300쪽.

39) 이기관 증언, 같은 책.

전인천 학생의용대의 초기 활동은 지역을 기반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의 학도의용군 활동과 비교된다. 당시 서울을 탈출한 학생들로 구성된 비상학도대는 한강선 방어선 전투에 일부 참여하기도 하였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황을 보도하는 등 가두선전과 피난민 구호, 그리고 남하하는 학생들을 규합하는 일들을 하였다. 그러다가 북한군이 7월 3일 한강을 도하하자 비상학도대 소속원들은 피난민 대열에 따라 휩쓸려 내려갔다.<sup>40)</sup> 그러나 인천의 경우 학생의용대는 자신의 고향을 지키며 지역에서 필요한 활동들을 할 수 있었다.

#### 4. 인천수복 후 조직 및 활동과 남으로의 장정

1950년 9월 15일 국제 연합군의 인천상륙작전은 인천지구 학도의용군의 부활을 가져왔다. 피란길에 올랐던 학생들과 지하에 숨어 있던 학생들이 연합군이 진주하자 다시 활동을 재개한 것이다. 이들은 중구 용동 큰 우물 사거리의 몇몇 건물에 본부를 정하고 재차 지도부를 선출하였다. 지도부 가운데 선전부장이 김영택에서 유복련으로 바뀌었고 여자감찰부가 신설되어 부장에 인천여자중학교 6학년인 이란주가 선임되었다.<sup>41)</sup> 그리고 최경환이 군악대장으로 활약하게 되었다.<sup>42)</sup>

이 시기에 조직의 성격과 관련된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 전인천 학생의용대가 국방부 정훈국 인천지구 대한학도의용대로 개칭되며<sup>43)</sup> 국방부로부터 정식 인증서를 받게 된 것이다.<sup>44)</sup> 이는 6·25전쟁 기간 동안

4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 학도의용군』, 54~55쪽.

41) 이기관의 증언, 같은 책, 311쪽

42) 인천학생 6·25 참전사 편찬위원회, 『인천학생 6·25 참전사 I』, 380쪽.

43) 정국로는 이를 대한 학도의용대 경기도 본부로 표현하였다. 정국로, 『한국학생민주운동사』, 서울: 반, 1995, 166쪽.

44) 이기관의 증언, 『인천학생 6·25 참전사 II』, 310~311쪽; 정국로는 동 조직의 명칭을 대한학도의용대 경기도본부로 기억하고 있다. 정국로, 같은 책, 165쪽.

발생한 정부의 학도의용군 통합 방침에 기인한 것이다. 1950년 7월 26일 대구에서 비상학도대와 의용학도대가 대한학도의용대로 통합되었는데, 의용학도대는 대전에서 결성된 학도의용군 조직이었다. 대한학도의용대는 이후에 부산에서 형성된 동일한 명칭의 학생 조직을 다시 통합하여 국방부 정훈국의 관리를 받게 되었다. 대한학도의용대는 전국적인 조직으로서 학도의용군 27,700명이 이를 통해 전투에 참가하였고 27만 명이 후방에서 선무공작 임무를 수행하는 창구가 되었다.<sup>45)</sup> 인천의 학도의용군도 이러한 전국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명칭을 바꾸고 국방부의 통제를 받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인천의 학생들은 국방부 인증 이후에도 정식 명칭 대신 인천 학도의용대를 사용하기로 하였다.<sup>46)</sup>

국방부 정훈국의 인증서를 받은 이후 인천 학도의용대는 국방부의 밀접한 지도를 받으며 활동을 시작하였다. 국방부에서는 엄희철 대위<sup>47)</sup>를 인천 파견대장에 임명하여 이들의 활동을 지도하도록 하였다. 당시 국방부 정훈국 인천 파견대와 인천 학도의용대는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조사계장으로 있던 김은하가 학도의용대 고문으로 취임하였고 학도의용대 선전부장 유복련이 정훈국 인천 파견대의 서무계장으로 자리를 옮기기도 하였다.<sup>48)</sup>

인천 학도의용대는 그해 12월 18일까지 인천에서 치안 유지 활동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다. 학도의용대가 주로 하였던 활동은 마을 단위의 경계와 순찰, 부역자 색출, 기타 질서유지 활동이었다. 만수동 분대의 경우 야간에 주로 마을을 경비하였고<sup>49)</sup>, 감찰대원들은 다른 학생들을 선도하며

45) 육군본부, 『대한민국 학생군사교육 발전사』(육군본부, 1986), 66~69쪽; 손규석, 『학도의용군의 활동유형 분석』,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2002, 63쪽.

46) 이기관 의견, 『인천학생 6·25 참전사 II』, 312쪽.

47) 육사 8기로 임관하였으며 1959년 중령으로 전역하였음. 인천학생 6·25 참전사 편찬위원회가 1997년 9월 23일 직접 육군본부에 확인하였음. 『서해문화』8~9월호(1998), 6~7쪽에서 재인용.

48) 이기관의 증언, 위의 책, 312쪽.

49) 박제훈의 증언, 인천학생 6·25 참전사 편찬위원회, 『인천학생 6·25 참전사 III』, 인천: 인천학생 6·25 참전사 편찬위원회, 2010, 314쪽.

순찰조를 짜서 구역별로 인천시내를 돌며 남아 있는 부역자들을 색출하였다.<sup>50)</sup> 그 외에 인천 학도의용대는 월남한 피난민들을 안내하고 일반인들의 군 입대를 알선하기도 하였다.<sup>51)</sup>

인천 수복 이후에도 인천지구 학도의용대는 연고지 내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중요한 활동상의 특징을 이어갔다. 6·25전쟁 당시 학도의용군의 활동은 국군에 협조하여 전투에 참가하든지 후방지역에서 선무공작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전자의 경우 앞서 언급한 대한학도의용대를 통해 국군에 소속되어 개별적으로 전투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학도의용군이 조직을 이루어 부대단위로 참전하기도 하였는데 포항여중 전투에 참전하여 산화한 제3사단 학도의용군이 이러한 사례에 해당한다. 그리고 전국학련구국대에 속한 많은 학도의용군은 피난지 대구에서 결성되어 후방선무공작, 현역 입대 및 참전, 정보업무 등 전쟁지원 활동을 수행하였다.<sup>52)</sup> 인천 학도의용대는 특이하게 해당 연고지에서 치안유지를 전담하는 오늘날의 용어로 표현하면 안정화작전 임무에 종사한 것이다.

이 시기 인천 학도의용대는 왕성하게 조직을 확장하였다. 그 방법은 주로 가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인천의 각 지역에 지대를 설치하고 그 아래에 분대를 두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식이었다.<sup>53)</sup> 학생들의 가입 신청이 폭주하여 이를 통하여 학도의용대의 영향력을 신속하게 넓히는 동시에 확장된 지역의 치안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다. 학생들이 가입을 희망하였던 주된 이유는 북한군 점령기 3개월 간 많은 고초를 당하였기 때문이다.<sup>54)</sup>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혹은 단체로 조직을 결성한 이후에 학도의용대에 가입하였다. 인천 학도의용대 북구지대의 경우 수복 이후 공산 치하에서의 고통을 반복하지 않고자 하는 학생들이 류문길을 중심으로 결성된 학생자치대였고 이 조직이 그대로 학도의용대로 흡수

50) 김학일의 증언, 같은 책, 291쪽.

51) 인천학생 6·25 참전사 편찬위원회, 『인천학생 6·25 참전사 I』, 317쪽.

5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 학도의용군』, 58~60쪽.

53) 박종근의 증언, 위의 책, 318쪽.

54) 강우찬의 증언, 인천학생 6·25 참전사 편찬위원회, 『인천학생 6·25 참전사 III』, 187쪽.

되었다.<sup>55)</sup> 여기에는 인천상업중학교 출신으로 모교에서 교편을 잡았다가 해병대에 입대하여 소위로 인천에 상륙해 온 심선택 소위가 고학년 학생들을 따로 모아 학업을 준비하고 자치단체를 구성하라는 권유를 한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sup>56)</sup>

또 한 가지 조직을 확장한 방법은 인천 학도의용대가 직접 선무공작을 통하여 학도의용대를 조직하는 것으로 강화지대가 대표적인 예이다. 학도의용대는 예하기구로 운용하고 있는 선무공작대를 강화도에 파견하여 주민들을 선무하고 강화도 학생들로 하여금 학도의용대 지대를 창설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무공작 대장인 인천상업중학교 5학년 하원용이 대원들을 인솔하고 강화도로 이동하였고 그 다음날 이기관이 합류하였다. 이들의 활약에 의하여 강화도에 인천 학도의용대 강화지대가 창설되었으며 조직이 구성되었다.<sup>57)</sup> 인천 학도의용대의 지대는 북구, 동구, 중구, 서구지대가 먼저 창설되었고 이후 외곽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전체적인 조직은 다음과 같다.

〈표 2〉 인천 학도의용대 조직

조 직	책임자	비 고	조 직	책임자	비 고
북구지대	류문길 정대연	경성상공중학 5 감리신학대학 2	계양지대	조순업	인천동산중 6
서구지대	정치호	서울공업중	영종지대	장치복	건국대학교 1
동구지대	유00	인천상업중 5	부평지대	?	
남동지대	최수보	고려대학교 2	강화지대	강원영	강화농중 6
주안지대	권용훈	인천상업중 졸	강화남지대	박남훈	국민대학교 2
해성지대	김옥관	인천해성중 4	중구지대	이00	인천공업중 5
송현분대	이광우	서울공업중 4	용동분대	신현기	인천동산중
화수분대	이덕준	인천상업중 4	내동분대	송윤봉	서울중동중
화평분대	김영배	인천동산중 4	용유분대	?	
금곡분대	?		무의2리분대	유재영	인천동산중
송림분대	?		갈산연락책	김용욱	인천공업중 5

출처 : 인천학생 6·25 참전사 편찬위원회, 『인천학생 6·25 참전사 I』 (인천, 2007), 380~381쪽을 재구성

55) 백재익의 증언, 인천학생 6·25 참전사 편찬위원회, 『인천학생 6·25 참전사 II』, 225~226쪽.

56) 같은 책, 81~84쪽; 류문길·민병태·이동호, 주인숙의 증언, 같은 책, 85~91쪽.

57) 이기관의 증언, 같은 책, 312~313쪽.

인천 학도의용대는 약 2개월여의 활동 끝에 전황이 불리하게 전개되자 후방 철수를 결행하게 되었다. 이보다 먼저 인천 학도의용대는 연대편제로 개편되었다. 연대장은 이계송, 부연대장 이기관, 제1대대장 이상현(연세대학교 2), 제2대대장 정대연(감리신학대학 2), 제3대대장 권유상(서울대학교 2), 제5대대장에 최광만(서울대학교 2)이 임명되었다.<sup>58)</sup> 연대편제로의 개편은 중국군<sup>59)</sup> 참전 이후의 급박한 정세 변화에 따라 이루어졌다. 중국군이 1950년 10월 19일부터 6·25전쟁에 개입해서 제1차 공세와 2차 공세에서 승리하면서 전세가 국제연합군에게 불리하게 된 것이다. 연합군은 중국군의 공세에 밀려 38도선 이남까지 철수하였으며 서울의 안위가 다시금 위태롭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인천 학도의용대는 이남으로의 철수를 결정하였다.

구체적인 철수의 결정은 국방부 정훈국의 인천 파견대장이었던 엄희철 대위를 통해 전달되었다. 엄대위는 인천이 다시 공산군의 위협에 놓이게 되자 많은 학생들이 공산군에 의하여 의용군으로 끌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철수를 건의하여 승인을 받았다고 증언하였다.<sup>60)</sup> 이 기관을 비롯한 많은 학생들은 철수 지시가 상부에서, 즉 국방부에서 하달된 것이라고 기억하고 있는데<sup>61)</sup> 이 상반된 진술을 엄희철의 건의를 상부에서 검토하여 승인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당시 정부차원에서 창장년을 무조건 급히 남쪽으로 후퇴시키라는 지시를 병사구사령부에 하달하였었다. 이는 이기관이 학생들의 수송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철수를 명한 것에 대해 병사구 사령관을 찾아가 항의하자 사령관이 대답한 내용이다.<sup>62)</sup> 사령관은 그러나 “인천 학도의용대에서 인천을 철수하겠다는

58) 인천학생 6·25 참전사 편찬위원회, 『인천학생 6·25 참전사 I』, 382~383쪽.

59) 중국군은 당시 중공군을 의미함.

60) 엄희철의 증언, 인천학생 6·25 참전사 편찬위원회, 『인천학생 6·25 참전사 III』, 73쪽.

61) 이기관의 증언, 위의 책, 315쪽; 아울러 엄희철을 인터뷰하였던 인천학생 편찬위 역시 국방부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었느냐는 질문을 하였다. 인천학생 6·25 참전사 편찬위원회, 『인천학생 6·25 참전사 III』, 73쪽 참조.

62) 엄희철은 당시 병사구사령관을 김완룡으로 기억하였다. 정부의 창장년 철수 명령은 추후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내용이다.

연락이 와 일단 인천 학도의용대를 인천에서 철수시켜 놓고보자는 식으로 철수시켜 놓고보니...”라고 하여 정부의 지시보다는 인천 학도의용대의 건의가 있었음을 지적하며 책임을 회피하였다. 그리고 엄희철 대위 역시 병사구사령관의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글쎄요”라고만 대답하였다.<sup>63)</sup> 이를 종합하여 보면 청장년을 후퇴시키는 정부의 방침 아래 인천 학도의용군과 긴밀한 관계에 있던 엄희철 대위의 건의에 의해 철수가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후방지역으로의 철수는 학생들 개개인에게는 모진 여정이었다. 인천 학도의용군 3,000명은 1950년 12월 18일 인천 축현국민학교에서 출정식을 갖고 남으로 행군을 시작하였다.<sup>64)</sup> 이들은 정부로부터 전혀 수송대책이나 급식대책을 제공받지 못한 채 가용한 범위 내에서 양식이나 돈을 휴대하고 남으로의 행군을 시작하였다. 학생들은 당일 늦게까지 출정식을 하고 근약대를 따라 인천시내를 한 바퀴 돈 이후 도보로 안양을 향하여 이동을 개시하였다.<sup>65)</sup> 이들은 안양에서 하루를 지내고 다음날 수원에 도착하여 수원에서는 개인적으로 열차를 이용하여 대구까지 이동하였다. 당시 열차에는 피난민이 가득하여 학생들은 열차 지붕 위에 앉아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sup>66)</sup>

인천 학도의용대의 최종 목적지는 통영의 제3국민방위군 수용소였다.<sup>67)</sup> 최종 목적지에 대한 이 지침은 당시 현황에 따라 철수 결정과정에서 인천 학도의용대를 국민방위군에 편입시키는 것으로 방침이 정리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중국군이 국경을 넘어 참전해 오자 한국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대규모 병력동원을 계획하였고 그 대책은 국민방위군을 조직하는 것이었다.<sup>68)</sup> 한국정부는 1950년 12월 16일 국민방위군

63) 엄희철의 증언, 같은 책.

64) 정국로는 남하한 인원을 2,000명으로 기록하였음, 정국로 위의 책, 167쪽.

65)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223쪽.

66) 백재익의 증언, 인천학생 6·25 참전사 편찬위원회, 『인천학생 6·25 참전사 II』, 226~227쪽.

67) 인천학생 6·25 참전사 편찬위원회, 『인천학생 6·25 참전사 I』, 385쪽.

68) 국민방위군에 대해서는 남정옥, “국민방위군”,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1』,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참조.

설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만 17세 이상 만 40세 이하의 남성을 대상으로 하여 제2국민병의 모집을 시작하였다.<sup>69)</sup> 그리고 실질적인 모집은 많은 경우 병사구사령부를 통한 집단 소집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인천지구 병사구사령부에서는 자연스럽게 인천 학도의용대를 후방으로 철수시킬 때 국민방위군에 편입시킬 것을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국민방위군설치법은 12월 21일 공포되었지만<sup>70)</sup> 12월 13일부터 관련된 조치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sup>71)</sup> 법령 공포 이전에 국민방위군으로의 편입과 이와 연관된 수용대책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인천 학도의용대의 지휘부는 그대로 제3국민방위군 수용소에 입소할 경우 학도의용대의 정체성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대원들 자체가 뿔뿔이 흩어질 염려가 있어 육군본부에 찾아가 진로를 상의하기로 하고 이계송 연대장과 남하 이후 부연대장으로 임명된 정대연 부연대장이 호위병과 함께 대구까지 도보로 이동하였다. 이들 지휘부는 육군본부 인사국장 황헌진 준장을 만나 무기를 지급해주고 현역 지휘관을 배정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황준장은 그대신 일단 훈련소에 입소할 것을 제안하며 인천 학도의용대의 훈련소 입소와 수송수단 징발권 등에 관한 각서를 써 주었다.<sup>72)</sup>

이들이 훈련소 입소 제안을 수락한 것은 다시 인천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와중에 일부 인원들이 해병대 모병에 응하여 해병 6기로 입소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인원들은 지휘부가 대구에 간 사이 통영 방위군 수용소로 이동하였는데 이계송의 요청에 의해 선편으로 이들은 다시 부산으로 이동하여 1951년 1월 10일 제2훈련소에 입소하였다.<sup>73)</sup>

69) 『조선일보』, 1950.12.17; 국민방위군 설치법은 법령 제72호로 공포되었다. 국방부 정훈국 전사편찬회, 『한국전란 일년지』(국방부 정훈국 전사편찬회, 1951), C70쪽.

70) 공포일은 『경향신문』, 1950.12.22에서 확인; 남정옥, 같은 논문, 198쪽.

71) 국방부에서는 1950년 12월 13일 계엄사령관명의로 제2국민병 해당자에 대한 개인행동을 제한하기 시작하였다; 남정옥, 같은 논문, 199쪽.

72) 인천학생 6·25 참전사 편찬위원회, 같은 책, 386쪽.

73) 같은 책, 388~389쪽.

한편 이후에도 인천 학도의용대의 추가적인 남하가 수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인천상업중학교 밴드부가 본대와 함께 출발하지 못하다가 12월 24일 학도의용대의 여학생 95명과 함께 인천항에서 ‘원자호’에 승선하여 부산항에 도착하였다. 이들 밴드부 전원은 차후에 육군종합학교 군악대로 전환되었으며 여학생들은 인천상업중학교 출신으로 통신학교에 근무 중이던 신봉순 대위의 선처로 통신학교에서 지내게 되었다. 그리고 12월 25일에 학도의용대의 잔여 130명이 최재경의 인솔에 의해 철도편으로 부산까지 남하하였으며 강화남지대가 추가적으로 수송선 ‘이천호’에 승선하여 부산까지 이동하였다.<sup>74)</sup>

해병학교와 제2훈련소에 입소한 이후 인천 학도의용대 대원들은 각자 군에 속하여 자신의 길을 개척하여 갔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학도의용대의 연장자들은 가능한 범위 안에서 어린 학생들을 돌보았다. 인천 학도의용대가 출발할 때 나이 먹은 ‘형’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동생이나 다름없는 후배들을 잘 돌보아 달라”는 당부였다.<sup>75)</sup> 육군본부 인사국장을 만났던 이계송과 정대연이 황준장으로부터 중위계급을 제안 받았을 때 자신들만 장교가 되고 어린 동생들을 이등병으로 총알받이로 보낼 수 없다며 거절한 것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sup>76)</sup> 김윤규는 어린 학생들과 함께 화차 지붕에 앉아 내려오며 그들을 위해 가마니를 사서 바람을 가려주기도 하였고 식사를 해결해 주기도 하였다.<sup>77)</sup> 그리고 이상현은 통영의 방위군 수용소에 끝까지 남아 있으면서 인천에서 온 학생들과 여학생들을 보호하고 진로를 알선해 주기도 하였다.<sup>78)</sup>

이러한 행동은 인천이라는 동일한 지역의 지역공동체 안에서 오랜 세월을 동고동락 해온 특별한 관계에서 형성된 강력한 유대감의 발로로 이해된다. 이들 사이의 강한 유대는 참전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74) 같은 책, 320~321쪽.

75) 김병수의 증언, 인천학생 6·25 참전사 편찬위원회, 『인천학생 6·25 참전사 Ⅲ』, 229쪽.

76) 인천학생 6·25 참전사 편찬위원회, 『인천학생 6·25 참전사 Ⅰ』, 386쪽.

77) 김윤규의 증언, 인천학생 6·25 참전사 편찬위원회, 『인천학생 6·25 참전사 Ⅲ』, 273쪽.

78) 이상현의 증언, 같은 책, 431~432쪽.

있다. 1997년 11월 당시 인천공업중학교 5학년이던 윤중기는 함께 학도의용군으로 참전하였던 황하삼이 전쟁터에서 돌아오지 못하자 이를 애통해 하였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2학년으로 남동지대장으로 활약하였던 최수보는 1998년의 증언에서 시종일관 어린 동생들을 잘 돌볼 것을 다짐하였고 그를 따라준 어린 대원들을 잊어본 적이 없다고 고백하였다.<sup>79)</sup>

이 유대감은 특별히 어린 학생들과 여학생들에 대한 보호의 형태로 나타났다. 심지어 제2훈련소에서 신체검사를 하여 어린 학생들이 탈락하게 되자 상급생들이 나서서 “인천에서부터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이곳까지 내려 온 저네들을 그대로 밖으로 내보낼 수 없다”고 간청하여 입대시키기도 하였다.<sup>80)</sup> 이러한 지역적 유대는 인천상업중학교에서 물상 교사로 재직하다 육군사관학교 8기로 임관하여 당시 통신학교에 근무하던 신봉순 대위의 행적에서 잘 드러난다. 거처가 없던 인천 학도의용대의 학생들이 1951년 초 신봉순을 찾아왔다. 이들의 사정을 들은 이후 신봉순은 통신학교에 입교한 인천 학생들이 교육받는 동안 조교들이 구타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안전한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배려하였다. 그리고 오갈데 없는 100여 명의 여학생들을 통신학교의 보조요원이나 행정요원으로 배치하여 생계를 해결해 주기도 하였다.<sup>81)</sup>

## 5. 맺음말

인천지구의 학도의용군은 6·25전쟁사 학도의용군사를 다시 쓸 만큼 중요한 활동을 하였다. 이들은 개전 초 자발적으로 다른 어느 지역보다 먼저

79) 인천 학도의용군 기념관 게시 자료, 20013.3.17.

80) 김기학의 증언, 같은 책, 314쪽. 김기학은 14세에 입대하였다.

81) 신봉순의 증언, 인천학생 6·25 참전사 편찬위원회, 『인천학생 6·25 참전사 I』, 366~367쪽.

학도의용군을 조직하였고 지역의 원로 의사결정기구의 통제 아래 지역 관공서와 협조하여 침착하게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였으며 심지어 국가 공권력이 철수한 다음에도 다시 경찰을 요청하여 인천이 조기에 공산치하에 떨어지는 것을 막아내었다. 이러한 활동은 전전 편성되었던 학도호국단의 체제가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인천의 수복은 학도의용군의 부활을 가져왔다. 학도의용군은 인민군 치하의 학정을 경험하였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급격하게 조직이 확장되었고 국방부 정훈국의 통제를 받아 자신의 연고지에서 치안과 질서 유지 등의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고 후방으로 이동하여서는 훈련소를 거쳐 정식으로 군에 입대하였다. 인천 학도의용군의 활동은 일반적으로 후방 피난지역에서 결성되어 전쟁지원 활동에 종사하였던 여타 학도의용군의 활동과는 궤를 달리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전황이 불리해지면서 국방부의 철수 방침에 따라 부산과 통영까지 이동하였고 이후 해병대와 육군에 입대하여 정규군의 일원으로 조국 수호에 앞장섰다. 한편 이러한 와중에 인천의 학생들은 강력한 지역적 유대감을 유지하며 서로를 돌보는 미덕을 발휘하였다.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는 전쟁의 삼 요소 가운데 국민을 지목하였고 그 국민이 제공하는 것이 열정임을 설명하였다. 6·25전쟁 시 인천지구 학도의용군은 이러한 클라우제비츠의 설명을 그대로 구현한 사례였다. 프랑스 혁명 이후 구세력들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지키려 군에 자원하였던 프랑스의 젊은이들처럼 인천의 학생들은 분연히 일어서 인천을 지키려 하였고 이후에는 군복을 입고 전선에 뛰어들었다. 인천지구 학도의용군은 자발적인 국민참여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학도의용군 연구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현실에서 인천지구 학도의용군은 증언 자료의 정리로 인하여 높은 학술적 연구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것은 순전히 참전자들의 증언을 채록하고 편집해낸 인천학생편찬위의 노력 때문이다. 인천의 사례가 향후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였던 학도의용군 연구에 좋은 표본과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인천의

사례는 6·25전쟁 당시 학도의용군과 연관된 정부정책이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하는 필요성도 잘 보여주고 있다.

(원고투고일 : 2013.4.1, 심사수정일 : 2013.5.14, 게재확정일 : 2013.5.22)

주제어 : 6·25전쟁, 학도의용군, 인천 학도의용군, 전인천 학생의용대,  
학도호국단, 인천지구 대한학도의용대, 해병대, 제2훈련소, 동생들

<ABSTRACT>

## Organization and Activities of the Student Volunteer Force at Incheon during the Korean War

Son, Kyeong-ho

This paper attempts to explore the reality of Incheon Student Volunteer Force (ISVF) in terms of its organization and activities during the Korean War. The unit was established under the initiative of senior students of Incheon Student Volunteer Force which had been supported by South Korean government until the outbreak of the war.

Contrary to common knowledge, the ISVF was the first student volunteer force that was created on June 26, 1950. Unlike other student volunteer forces, the ISVF played a great role in maintaining security at the initial phase of the war. Even, the students asked Korea National Police that had withdrawn from Incheon to defend the city, and they distributed food, and guarded major municipal governmental buildings.

Since the recovery of Incheon, the students reorganized their unit and expanded it to include more students around Incheon. Due to their impressive activities at the initial phase of the war, ISVF could gain a lot of memberships. At this time, the ISVF was under the control of a detachment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following the policy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he ISVF was suddenly ordered to move to a southern province due to Chinese intervention in late 1950. Nearly 3,000 students made their ways to the south without proper supports from the ROK government. Most students faced ordeals and hardships while they were moving toward the south. Eventually, students began their new lives as marines and army soldiers after taking military training.

The ISVF and its students showed “passion” of people that was mentioned by Clausewitz. The students sacrificed themselves to save their country without hesitation. At the same time, they demonstrated strong fraternity by caring each other, which encouraged individuals to survive the war.

Key Words : The Korean War, Student Volunteer Force, Incheon Student Volunteer Force, Whole Incheon Student Volunteer Unit, National Student Guard, Incheon Detachment of ROK Student Volunteer Unit, The Marine Corps, The 2nd Military Training Camp, Younger Brothers

